여성주의의 시각에서 본 홍명희의 『임꺽정』*

강영주**

차 례

1. 머리말
2. 주체적인 여성상과 남녀평등 사상
3. 작품 후반의 여성의식의 변모와 여성의 타자화
4. 『임꺽정』의 리얼리티와 여성의식의 한계
5. 맺음말

국문초록

이 논문에서는 홍명희의 역사소설 『임꺽정』을 여성주의의 시각에서 고찰해 보았다. 『임꺽정』에는 강하고 주체적인 여성상과 의좋은 부부상이 자주 등장하며, 남녀평등 사상을 구현하는 등장인물들의 언동이 두드러지게 그려져 있다. 그러한 특징은 『임꺽정』이 조선 후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남녀차별이 심하지 않았던 16세기를 배경으로 한 역사소설인 데다가, 주요 등장인물들이 봉건체제로부터 이탈하여 도적패에 가담하는 민중들로 설정되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또한 홍명희는 남녀평등에 대한 확고한 소신을 지니고 있었고, 식민지 치하에서 민족의식의 보존을 위해 역사소설을 쓴다는 계몽적인 의도를 지니고 창작에 임했으므로, 『임꺽정』에서 조선시대 여성들의 성격과 생활을 미화한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 이 논문은 2006학년도 상명대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상명대 국어교육과 교수

그러나 작품의 후반부인 「화적편」에 이르면 주인공 임꺽정은 봉건적인 남녀 차별을 당연시하는 통념적인 남성으로 변모하고, 임꺽정의 아내 운총을 비롯한 대부분의 여성인물들은 타자화된 채 적극성을 상실한 평범한 여성으로 전락한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 이러한 변모는 홍명희가 「화적편」을 연재하던 무렵에 『조선왕조실록』에 처음 접하고 실록의 내용을 수용하여 소설을 창작해나간 데서 초래된 것이라 볼 수 있다.

핵심어 : 홍명희, 『임꺽정』, 여성주의, 역사소설, 『조선왕조실록』

1. 머리말

이 논문에서는 벽초(碧初) 홍명희(洪命憙)의 대하역사소설 『임꺽정(林巨正)』을 여성주의의 시각에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필자는 오래 전에 박사논문의 일환으로 『임꺽정』에 대해 최초의 학문적 논의를 시도한 후, 십여 년에 걸쳐 작가 홍명희에 대해 연구하여 『벽초 홍명희 연구』를 출간했다. 그 과정에서 홍명희가 그 세대의 남성 지식인으로서는 예외적일 정도로 여성에 대한 억압과 차별에 대해 뚜렷한 인식과 비판적 태도를 지니고 있었을 뿐 아니라, 당시 진보적인 지식인들 사이에 전파되고 있던 서구의 페미니즘 이론에 대해서도 상당한 조예를 갖추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필자는 여러 면에서 『임꺽정』을 계승한 것으로 알려진 황석영의 역사소설 『장길산』을 논하면서, 『장길산』의 여주인공들이 남성중심주의적인 시각에서 왜곡되고 미화된 여성상에 가까운 데 비해, 『임꺽정』에서는 그 시대의 한계 내에서나마 남성에게 일방적으로 종속되지 않고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여성상이 두드러

짐을 지적한 바 있다.[1)]

최근 문단에 여성주의를 표방하며 등장한 몇몇 역사소설들을 제외하면, 식민지시기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 역사소설에서 여성인물들은 주로 작품의 흥미에 기여하는 부차적인 존재로서, 몇 가지 상투적인 유형으로 그려져 왔다. 즉 역사소설에서 여성인물들은 박종화의 『금삼의 피』『여인천하』에서처럼 궁중비화의 와중에서 질투와 음모와 복수의 화신으로 그려지거나, 이광수의 『이차돈의 사』『원효대사』에서처럼 남주인공의 영웅성을 부각시키면서 작품의 흥미를 돋구기 위한 삼각 연애의 대상으로 그려지거나, 간혹 민중 여성이 등장하는 경우에도 현진건의 『무영탑』에서처럼 청순가련한 여인의 수난사의 일환으로 그려져 온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홍명희의 『임꺽정』에는 강하고 주체적인 여성인물들이 주로 등장하며, 그것도 대체로 긍정적이고 비중 있게 그려지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특기할 만하다. 『임꺽정』은 식민지시기 한국의 역사소설 중 예외적으로 민중사를 중심으로 한 사실주의적 역사소설일 뿐 아니라, 여성주의의 시각에서 볼 때도 대단히 특이한 작품인 것이다.

『임꺽정』의 그와같은 면모에 대해서는 단편적으로나마 이미 몇몇 논자들에 의해 언급된 바 있다. 『임꺽정』이 연재되고 있던 1930년대부터 비평가로 활동한 안함광은 월북 후에 쓴 『조선문학사』에서 『임꺽정』의 "반봉건적인 계급성"을 높이 평가하면서, "그러한 반봉건성은 남녀관계의 봉건적 윤리에 대한 그들의 철저한 멸시에서도 역연히 표현되어진다. (…) 이 작품에서의 남녀 문제는 대체로 애정의 봉건적 윤리에 대한

1) 강영주, 「한국근대역사소설연구」(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6); 강영주, 『벽초 홍명희 연구』(창작과비평사, 1999), pp.211~213, pp.600~602; 강영주, 「역사소설의 리얼리즘과 민중성-『장길산』론」, 『한국 역사소설의 재인식』(창작과비평사, 1991), pp.265~269.

반대자의 특성을 체현한다"고 지적하였다.[2)]

남한에서 홍명희의 『임꺽정』에 관한 논의가 재개된 1980년대 말 이후 발표된 몇몇 논문들에서도 『임꺽정』의 여성인물들이 지닌 그와같은 특징을 언급하였다. 박대호는 『임꺽정』의 민중성을 논하면서, 『임꺽정』에 등장하는 다양한 계층의 여성들은 "삼종지도의 질곡에 갇힌 이조의 여성으로 보기 드문" 당당하고 적극적인 성격의 인물로 그려져 있는 바, 이는 "주변부에 속하는 여성의 성적 왜곡과 소외를 비판하는 작가의 세계관"이 투영된 결과라 보았다.[3)] 또한 임미혜·백문임·박명순·김재화 등의 석사학위논문에서도 『임꺽정』에 등장하는 여성인물들이 대부분 활달하고 적극적인 성격으로서 남성과 동등한 위치에서 결합하는 것으로 그려져 있으며, 그 배후에는 봉건적인 인간관계를 비판하는 작가의 평등사상이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4)]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들은 일찍이 필자가 『장길산』과 『임꺽정』을 비교 고찰하면서 제시한 견해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서, 『임꺽정』에 그려진 여성인물들과 남녀 간의 결합 양상에 대해 대체로 타당한 지적을 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임꺽정』의 다른 면모를 주로 논하면서 위와같은 작품의 특징을 단편적으로 언급한 정도에 머무른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여성주의[5)]의 시각을 분명히 전제한 위에서 전

---

2) 안함광, 『조선문학사』(연변교육출판사, 1956), p.317.

3) 박대호, 「민중의 주변부성과 향약자치제적 세계관-홍명희의 『임꺽정』」, 『한국현대장편소설연구』, 구인환 외 공저(삼지원, 1989), pp.179~182.

4) 임미혜, 「홍명희의 『임꺽정』 연구-역사소설의 특징과 형태를 중심으로」(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pp.119~121; 백문임, 「홍명희의 『임꺽정』 연구-구성방식을 중심으로」(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p.44; 박명순, 「벽초의 『임꺽정』에 나타난 여성인물 연구」(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p.39, pp.84~85; 김재화, 「홍명희의 『임꺽정』 연구-조선정조와 민중정서를 중심으로」(상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pp.58~60.

10권에 달하는 홍명희의 대하역사소설 『임꺽정』 전체를 더욱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즉 『임꺽정』에 그려진 여성상의 특징을 다각도로 고찰하고, 이 작품이 과연 그 시대 여성의 현실을 제대로 그려내고 있는지를 검토해보려는 것이다. 아울러 여성주의의 시각에서 본 『임꺽정』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고, 그러한 한계를 초래한 원인에 대해서도 규명해보고자 한다.

2. 주체적인 여성상과 남녀평등사상

『임꺽정』은 조선시대 화적패의 활동을 소재로 한 사실주의적 역사소설이므로, 여성주의의 시각에서 볼 때 일정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이 작품 전체의 주인공은 임꺽정 한 사람만이 아니라 청석골 화적패의 두령이 되는 7명의 의형제라 할 수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이 청석골 두령들 중 여성은 없다. 『임꺽정』에서 비중있는 여성인물들은 대부분 청석골 두령들을 위시한 남성인물들의 삶의 내력 중 그들이 각기 짝을 만나 혼인하게 되는 과정에서 배우자로 등장한다. 따라서 작중에서 여성은 대체로 주인공이 아니라 부인물이며, 주체라기 보다는 타자로서 형상화되어 있다.

그렇기는 하지만, 『임꺽정』에는 강인하고 자기 주견이 뚜렷한 주체적인 여성인물이 다수 등장하며 작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여성인

5) 본고에서는 논의의 대상이 되는 작품을 여성의 관점에서 보고 접근하는 하나의 방법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여성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페미니즘이라는 용어는 흔히 여성운동이나 이를 뒷받침하는 이념 혹은 이데올로기를 포괄하는 뉴앙스를 지닌 개념이기 때문이다. (김혜숙, 「여성주의 방법의 철학적 모색: 음양의 방법」, 『근대를 바라보는 여성주의적 시각』, 제1회 여성주의 인문학 연합학술대회 발표요지, 2006.6, p.3. 참조)

물들은 대개 우여곡절을 거쳐 혼인하게 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애정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줏대있는 여성으로 그려져 있는 것이다. 그러한 여성인물의 대표적인 예로 이장곤의 아내 봉단이를 들 수 있다.

『임꺽정』은 「봉단편」 「피장편」 「양반편」(사계절사의 제3판으로 각 1권), 「의형제편」(3권), 「화적편」(4권, 미완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서두에서 등장하는 봉단이는 「피장편」에서야 비로소 등장하는 임꺽정의 당고모로 설정되어 있다. 연산군의 학정을 피해 달아난 전 홍문관 교리 이장곤이 백정의 사위가 되어 몸을 숨기고 지내다가 중종반정 후 다시 신분을 회복하고 벼슬길에 나아간 이야기는 『기묘록 보유(己卯錄補遺)』와 『청구야담(靑丘野談)』에 수록되어 있다.[6] 작가는 어디까지나 양반 남성 이장곤의 이야기인 이 야사와 야담을 근거로 하여 봉단이라는 대단히 인상적이고 개성적인 여성인물을 창조해내고, 『임꺽정』 첫째 편의 소제목을 「봉단편」이라고 붙이기까지 하였다.[7]

작중에서 묘사된 봉단이는 백정의 딸로서는 예외적일만큼 품위있고 지혜로울 뿐 아니라, 자신의 애정을 적극적으로 실현해가는 줏대있는 여성이다. 처음 마주쳤을 때부터 서로에게 호감을 품은 두 사람은 금슬좋은 부부생활을 하지만, 이장곤은 '게으름뱅이 사위'라 구박받고 장모에게 쫓겨나게 된다. 뒤쫓아온 봉단이와 몰래 만난 이장곤이 자기의 신분을 밝히자 봉단이는 세상이 좋아지면 자기를 어찌할 셈이냐고 묻고,

---

6) 임형택 · 강영주 편, 『벽초 홍명희와 『임꺽정』의 연구자료』(사계절, 1996), pp.471~480. 이하 『벽초 홍명희와 『임꺽정』의 연구자료』는 『벽초자료』로 약칭한다.

7) 신문 연재시 봉단편에는 편명이 없었으며, 말미에 '제1편 종(終)'이라고 표시되었을 뿐이다. 봉단편은 홍명희의 생존시에는 출판된 적이 없고, 1985년 사계절출판사에서 처음 단행본으로 출판되었다. 그러나 일제 말 조선일보사출판부에서 『임꺽정』 초판이 간행될 때 『조선일보』에 실린 광고를 보면, 「의형제편」 「화적편」에 뒤이어 「봉단편」 「피장편」 「양반편」이 차례로 간행될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조선일보』 1939년 12월 1일자), 「봉단편」의 편명을 작가 자신이 붙였음을 알 수 있다.

이장곤은 그녀를 버리지 않을 것을 맹세한다. 그러자 봉단이는 자결하려고 목을 매는 시늉까지 해서 어머니로 하여금 이장곤을 다시 불러들이게 한다. 그 후 중종 반정이 일어나자 새 임금의 특지로 봉단이는 숙부인에 봉해지고 동부승지로 승진한 이장곤의 정실로 인정받게 된다.

이장곤은 지체 높은 양반이라 평상시라면 천민 여성인 봉단이와 결코 맺어질 수 없는 신분이지만, 유배지에서 도망쳐 쫓기느라 굶주림과 피로에 지친 극한상황에서 그녀와 처음 만나게 되었고, 신분을 숨기고 혼인한 후 처가살이를 하였다. 두 사람은 철저히 봉건 체제의 바깥에서 만났고, 따라서 봉건적인 남녀차별의 제도나 관습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황에서 맺어진 것이다. 야사에 나오는 이장곤의 이야기에서 그러한 특수한 상황을 예리하게 파악하고 작품 속에 재현함으로써, 작가는 주체적인 여성상과 봉건적인 남존여비와는 거리가 먼 평등하고 의좋은 부부상을 한껏 그릴 수 있었던 것이다.

봉단이 이외에도『임꺽정』에는 자신의 애정을 실현하는 데 적극적인 여성인물들이 다수 등장하며 비중있게 그려지고 있다.「피장편」에서 백두산 태생으로 야생마처럼 자라나 자신의 감정을 거리낌없이 표출한 끝에 임꺽정과 혼인하게 되는 운총이,「의형제편」'이봉학이'장에서 비장인 이봉학의 인물됨에 반하여 귀신방 소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수청들기를 자진하고, 전주 부윤의 명을 거역하여 고초를 겪으면서도 절개를 지킨 끝에 사랑을 이루는 관기 계향이,「화적편」'소굴'장에서 임꺽정의 사내다움에 끌려 화적패의 대장인 그의 정체를 알고서도 자진해서 청석골로 따라가는 서울 기생 소홍이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8]

8)「의형제편」과「화적편」에서는 자신이 선택한 남성과의 애정을 적극적으로 성취해 가는 주체적인 여성은 대부분 기생 신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야사와 야담에 주로 의거함에 따라 설화적인 요소가 부분적으로 남아 있는「봉단편」「피장편」「양반편」과 달리,「의형제편」「화적편」은 근대 리얼리즘 소설로서의 성격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여성들처럼 애초부터 적극적인 성격은 아니지만, 『임꺽정』에는 각기 운명에 따라 배우자를 만나 혼인하게 되는 과정에서 많건 적건 주체적인 의사를 가지고 상당히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여성인물들을 도처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의형제편」 '박유복이'장에서 덕물산 최영장군 사당의 장군마누라로 바쳐졌다가 부모의 원수를 갚느라 살인을 하고 산중에 숨어든 박유복을 만나 인연을 맺게 된 작은년이는 자진해서 남복을 하고 유복이를 따라 나서 그의 아내가 된다. '길막봉이'장에서 소금장수 길막봉이의 아내가 되는 귀련이는 외딴 집에 혼자 있다가 도둑을 자처하며 나타난 길막봉이를 대하는데 대담하기 짝이 없으며, 그와 단둘이 하루밤을 지내고서도 태평으로 부모의 허락을 받아낼 수 있다고 장담한다. '결의'장에서 청석골 졸개 김억석의 딸은 한밤 중에 흑심을 품고 찾아온 두령 배돌석에게 칼을 들이대며 자신을 정식 아내로 삼겠다는 맹세를 하고 옷고름을 맺으라고 하여 언약을 받아낸다.

이와같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애정을 실현해나가는 여성인물이 다수 등장하는 점과 무관하지 않겠지만, 『임꺽정』에는 유달리 애처가인 남편과 비교적 동등한 관계를 유지하며 의좋은 부부생활을 하는 여성이 흔히 등장하며 잘 그려져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예는 「피장편」에 등장하는 김덕순과 그의 아내 이씨이다. 김덕순은 기묘사화 때 화를 당한 대사성 김식의 아들로서, 관의 추적을 피해다니던 중 자신이 죽은 것으로 오인한 아내가 상심한 나머지 사망하자, 그 뒤 종신토록 다시 장가들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기묘록보유』와 『야집(野輯)』에 실려 전해지고 있다.[9] 그러한 야사의 간략한 기록을 바탕으로 작가는 그 시대 양반가에 흔치는 않았으나 있었음직한 평등하고도 다정한 부부의 모습을 구체적이고도 실감나게 그려내고 있다.

---

9) 『벽초자료』, pp.511~512.

김덕순과 그 아내는 "내외간 금실이 여간 좋지 아니하"여, 양반가의 법도에 따라 평소 형과 함께 사랑에서 자게 되어 있는 김덕순은 날마다 아내 방에 가서 밤을 지내고 첫새벽에 사랑채로 건너가곤 한다. 그들 내외는 현대의 사이좋은 부부같이 밤마다 잠자리에서 다정하고 재미있는 대화를 주고 받는다. 아내 이씨가 친정을 "우리 집"이라고 하면서 시댁을 가리켜 "이댁에는" 운운하자, 김덕순은 "친정을 우리 집이라면 내가 듣기 섭섭해. 그 '우리'란 말 속에 나는 빠지니 내가 섭섭하지 않아?"라고 항의하여, "잘못했사오니 용서합소서. 이후에는 '우리'란 말을 명심해서 쓰겠삽네다."라는 아내의 농담 섞인 사과를 받아낸다. 이어서 작가는 "덕순이 내외간에 수작이 이렇게 실없은 것은 흔히 있는 일이었다."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어느 날 아내가 사주가 나쁜 것을 근심하며 내외가 한날 한시에 죽는 것이 소원이라고 하자, 김덕순은 한날 한시에 죽는 거나 다름 없도록 아내가 먼저 죽더라도 재취하지 않을 것을 맹세한다. 그리하여 아내가 죽은 뒤 김덕순은 다시 장가들지 않고 혼자 늙어가게 된다.[10]

그밖에도 『임꺽정』에는 이장곤과 봉단이 내외, 박유복이 내외, 청석골 본바닥 도적 오가 내외, 이봉학과 첩 계향이, 그리고 유별난 사위 취재 시험을 통과하여 봉산 이방의 사위로 뽑힌 황천왕동이와 그의 아내 옥련이 등, 의좋은 부부의 모습이 잘 그려지고 있다. 작가는 조선시대의 남녀관계라기에는 비현실적이라고 여겨지거나 고전적 역사소설에서 기피하는 지나친 '심리의 현대화'[11]가 초래되었다고 비판받지 않을 범위 내에서, 평등하고도 의좋게 살아가는 그 시대 여러 계층의 부부의 모습

10) 홍명희, 『임꺽정』 제2권, 제3판(사계절, 1996), pp.14~38, pp.250~251. 이하 『임꺽정』에서 인용된 부분은 별도로 주석을 달지 않고 본문에 권수와 면수만 밝힌다.

11) G. Lukács, "Der historische Roman," *Probleme des Realismus Ⅲ*, Frankfurt am Main : Suhrkamp, 1970, p.228.

을 아름답게 그려보이고 있는 것이다.

한편 조선시대 여성에 대한 오늘날의 통념과 달리, 『임꺽정』에는 남성들에게 절대로 지지 않는 강한 여성상이 자주 등장하며 인상적으로 그려져 있다. 대표적인 예로, 「봉단편」에서는 남편을 젖혀두고 집안 일을 좌지우지하는 드센 여성인 봉단이 어머니의 모습이 흥미롭게 묘사되고 있다.

봉단이 어머니는 우여곡절 끝에 이장곤을 사위로 맞아들이는 과정에서 그때마다 결정을 내리고, '게으름뱅이 사위'를 구박하다가 내쫓기까지 하고, 중종반정 후 신분이 밝혀지고 다시 벼슬을 제수받은 사위를 대하는 장면에서 으레 주도권을 쥐고 흔들 뿐 아니라, 말씨가 거칠고 입이 험하기가 이를 데 없다. 사위를 내쫓고 난 뒤 그녀는 "서방과 손그릇은 손때 먹일 탓이란다. 정만 들이고 보면 첫서방이나 둘째서방이나 매일반인 법이다." "서방과 무쇠솥은 새것이 언짢다지만 너만한 인물이 서방 없이 늙겠느냐?"라며 딸에게 재가를 권하기까지 한다.(1:95~96) 봉단이가 숙부인을 제수받은 뒤에는 봉단이 아버지가 "인제는 봉단이라고 이름을 부르지 맙시다."라고 제안하니, 봉단이 어머니는 화를 벌컥 내며 "숙부인이거나 무슨 부인이거나 내 밑구멍으로 나온 것을 이름도 못 부를까? 부르거나 말거나 내 맘이지 누가 이래라저래라 한단 말이오."라고 핀잔을 준다.(1:159)

봉단이 어머니는 임꺽정의 아버지인 돌이의 고모이므로, 임꺽정에게 대고모가 되는 여성이다. 따라서 작가는 신분 차별에 저항하여 화적패의 대장이 된 주인공 임꺽정을 반항적인 성격으로 그리기 위한 준비 작업의 일환으로, 임꺽정의 부친 돌이와, 돌이의 고모인 봉단이 어머니까지 강하고 드센 성격으로 형상화해놓은 것이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봉단이 어머니는 이처럼 언동이 거칠고 사납지만 결코 악녀는 아니며, 건강한 민중 여성으로서 다소 해학적으로 그려져 있기까지 하다는 점이

다. 『임꺽정』 「봉단편」은 고전소설 『춘향전』의 영향을 받았다고 지적되거니와,[12] 그중 봉단이 어머니의 인물 형상화에는 몰락한 신분의 사위를 박대하는 춘향모 월매의 성격의 모티브가 수용된 것이라 생각된다. 그런데 작가는 봉단이 어머니를 홀어미인 춘향모와 달리 공처가인 남편 위에 군림하며 살고 있는 유부녀로 설정하고, 그러한 여성인물의 성격을 빼어나게 형상화해내고 있다.

그 외에도 『임꺽정』에는 기갈이 세고 강인한 여성상이 흔히 발견된다. 「의형제편」 '길막봉이'장에서 귀련이 어머니는 외동딸 귀련이와 혼인하여 사위가 된 소금장수 길막봉이를 구박한 끝에 내쫓기까지 한다. 「화적편」 '청석골'장에서 임꺽정의 세 번째 서울 아내가 된 과부 김씨는 왕년에 어린 신랑을 물고 달아나던 호랑이 꼬리를 끝까지 붙들고 따라가 신랑을 구해낸 공으로 조정에서 열녀 정문을 내리기까지 한 여자이다. 여기에서 호랑이에게 물려간 신랑을 구해 열녀 표창을 받은 과부 이야기는 『계서야담(溪西野談)』 『청구야담』 등 여러 야담집에 수록된 평민 설화를 수용한 것이다. 그런데 전래 설화가 지아비를 구하기 위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쓴 여인의 헌신적인 행동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임꺽정』에서는 호랑이를 붙들고 끝까지 따라간 그 담력에 초점을 두어 과부 김씨의 당차고 강인한 성격을 형상화하는 데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13]

드센 여성인물이 많다 보니, 『임꺽정』에는 부부싸움 장면도 자주 등장하며 매우 실감나게 묘사되고 있다.[14] 이 작품에서는 워낙 민중 생활의 다양한 면모가 구체적으로 재현되므로 부부싸움 장면이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하겠으나, 식민지시기의 작품들 중 역사소설은 물론 현대를

12) 한창엽, 『『임꺽정』의 서사와 패로디』(국학자료원, 1997), pp.136~140.

13) 위의 책, pp.75~77.

14) 4:284, 5:6~8, 5:89, 5:145~148, 6:325~326, 7:276~283.

배경으로 한 소설에서도 부부싸움 장면이 그렇게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그려진 경우는 극히 드물다. 더욱이 그러한 장면에서 여성인물들은 절대로 남편에게 지지 않고 바락바락 대들며 상대방의 약점을 정확하게 공격하는데, 작가는 그러한 부부 간의 대화를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있을 따름이다. 따라서 작중에서 여성인물들이 남편에게 퍼부어대는 말은 독자들이 보기에 일리가 있으며, 작가가 남성의 편을 들고 있다는 느낌은 결코 들지 않는다.

『임꺽정』에 주로 그려진 여성상의 위와같은 특징들과 아울러 지적할 것은, 이 작품에서는 작가의 남녀평등사상을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듯한 등장인물들의 언동이 간간이 발견된다는 점이다. 예컨대 「의형제편」 '곽오주'장에서 박유복과 곽오주가 의형제를 맺는 장면을 보면 다음과 같은 대화가 눈에 띈다.

> "우리가 인제부터는 각성바지 형제다."
> "각성받이 할 것 없소. 내 성을 박가루 고치든지 형님 성을 곽가루 고치든지 맘대루 고치구서 참말 형제루 합시다그려."
> (…)
> "피가 달라서 성이 다른 것을 억지루 어떻게 하나."
> "성이 피에 붙은 것이오?"
> "붙은 셈이지."
> "그럼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 피를 다 받았으니까 성을 둘씩 가져야 하지 않소. 하필 아버지 성만 가질 것 무어 있소."(4:199~200)

본래 세상살이의 이치와 통념에 대해 무지한 곽오주의 발언이기는 하지만, 1990년대 우리나라 여성계에 처음으로 등장한 '부모 성 함께 쓰기'를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작가는 종작없이 여겨지는 곽오주의 입을 빌어 수천 년간 전해내려오는 부계 중심의 혈연제도에 대해 의문을 던

지며, 남녀평등을 주장하는 발언을 의도적으로 삽입해놓고 있는 것이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피장편」에서 김덕순은 아내가 요절한 뒤 재취를 권하는 모친에게 눈물로 호소하여 다시 장가들지 않고 혼자 늙어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사나이도 수절하느냐?"라는 모친의 말과 그에 대한 김덕순의 반응(2:250~251)을 통해 작가는 '부부가 사별하면 남자들은 으레 재혼하는데 왜 여자만 수절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화적편」 '소굴'장에서 청석골 두령 오가는 유달리 의좋게 살던 아내가 급사하자 하관할 때 함께 묻어달라며 몸부림을 치고, 그에 대해 서림은 "남편 죽는 데 따라 죽는 여편네를 열녀라구 하니 안해 죽는 데 따라 죽는 사내는 열남이 아니겠습니까. (…) 그래서 오두령 집에 정문 세울 공론을 했습니다."(8:166~167)라고 농담을 한다. 이 대목에서도 작가는 남편을 따라 죽는 부인은 열녀라 칭송하며 열녀정문까지 세워주는 반면, 아내를 따라 죽는 남편이란 있을 수 없는 일로 간주되며 그런 발상 자체가 조롱의 대상이 되던 봉건시대의 윤리관을 뒤집어보이며 그 부당성을 암시한 것이라 하겠다.

3. 작품 후반의 여성의식의 변모와 여성의 타자화

이와같이 홍명희의 『임꺽정』은 한국근대역사소설 중 예외적일 만큼 여성주의의 시각에서 볼 때 긍정적인 요소를 많이 지니고 있지만, 다른 한편 비판되어야 할 부분도 적지 않다. 그중 가장 크게 문제시되는 것은 「화적편」에 드러난 주인공 임꺽정과 그의 아내 운총의 변모이다.

「피장편」에서 청년이 된 임꺽정이 출가하여 병해대사가 된 스승 갖바치를 따라 백두산에 갔다가 운총과 만나 혼인했을 때, 두 사람은 모두

세속의 때가 묻지 않은 순수한 인물이었다. 운총은 임꺽정에게 호감을 갖게 되자 철 없는 어린애처럼 거리낌없이 감정을 표현하고, 남녀 유별에 대한 관념이 없어 남동생인 황천왕동이와 서로 꺽정이와 함께 자겠다고 다투기까지 한다. 며칠 후 임꺽정은 시집 장가드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운총에게 대강 설명하고 청혼한 뒤, 단둘이 천왕당에 들어가 혼인 서약을 하고 숲 속에서 부부의 연을 맺는다. 그런데 병해대사는 "아무 사심 없이 자란 것이 귀하다."라고 운총을 칭찬하는가 하면, "초례는 훌륭하게 지낸 셈입니다그려."라고 선언하여 두 사람 간의 혼인은 기정 사실이 된다.(2:301~313)

양주 출신 백정으로 천하장사인 임꺽정은 특이한 성장과정을 거치면서 봉건적인 신분관계에 대해 강한 거부감과 반항의식을 갖게 된 인물이다. 운총은 도망 노비의 딸로 백두산에서 태어나 자란 까닭에 인간 세상의 온갖 규범이나 습속과 단절된 상태에서 살아온 "길들지 아니한 생마와 같"은 처녀이다.(3:266) 이처럼 두 사람은 각기 나름대로 봉건 체제의 규범을 벗어난 인물로 성장해온 데다가, 그들간의 결합이 이루어지는 곳은 백두산이라는 원시적이고도 신성한 공간이다. 따라서 그들의 혼인은 신분차별과 남녀차별을 위시한 봉건적인 제도·윤리·관습과는 전혀 무관한, 순수한 인간으로서의 두 남녀 간의 결합이 되는 셈이다. 두 사람이 서로에게 호감을 품고 혼인하게 되는 과정은 단계마다 웃음이 나올 만큼 엉뚱한 양상으로 묘사되거니와, 이를 통해 작가는 원시적인 생명력이 넘치는 자유롭고 순수한 남녀 간의 결합을 아름답게 그려보이고 있다.

반면에 청석골 화적패가 결성되고 임꺽정이 대장으로 추대된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화적편」에서 임꺽정과 그의 아내 운총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청석골'장에서 청석골 화적패의 대장으로 추대된 임꺽정은 상경하여 서울 와주(窩主) 한온의 집에 머물면서

기생 소흥과 정을 맺고, 우여곡절 끝에 세 명의 여자를 '처'로 맞아들인다.[15] 임꺽정은 서울의 둘째 처인 원씨에게 "삼천 궁녀두 거느리구 살려든 기집 몇 개를 못 데리구 살까. 공평하게 해줄 테니 염려 마라." 하고 말하는가 하면,(7:220) 귀가를 종용하는 처남 황천왕동이를 폭행하고 분김에 달려온 아내 운총과 서로 욕설을 퍼부으며 치고 박고 대판 부부싸움을 벌인다.

게다가 부부싸움에서 운총이 "내가 딴서방을 몰래 얻으면 가만히 있겠나 생각 좀 해보지."라고 하자 임꺽정은 "기집년하구 사내대장부하구 같으냐?"라고 반문하고, 운총이 "사내나 여편네나 사람은 매한가지지."라고 대꾸하자, "저게 소견 없는 기집년의 생각이야. 그래 같은 사람이면 아이나 어른이나 마찬가지구 종이나 상전이나 마찬가지냐?"라고 반문한다.(7:282) 여기에서 임꺽정은 봉건적인 남녀차별을 당연시할뿐더러,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자신이 평소에 그토록 증오하던 신분계급상의 차별까지도 인정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후 '소굴'장에서 임꺽정은 서울의 처 세명이 체포되어 전옥에 갇히자 그녀들을 빼내기 위해 무모한 전옥 파옥을 계획하고, 반대하는 부하

---

15) 임꺽정이 세 여자를 굳이 첩이 아닌 정식부인으로 맞아들였다는 것도 "여성의 성적 왜곡과 소외를 비판하는 작가의 세계관"이 투영된 결과라 보는 견해도 있다.(박대호, 앞의 글, p.180) 그러나 여기에는 포교들이 서울 장통방에서 임꺽정을 잡으려다 놓치고 그의 처 세 명만 잡았다는 『조선왕조실록』의 기사(『명종실록』 15년 8월 20일자, 11월 24일자, 『벽초자료』, p.414, p.417)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라 생각된다. 운총과 소흥을 포함하여 무려 다섯명의 여자를 거느린 임꺽정이 그녀들을 처라 불렀건 첩이라 불렀건 남성중심주의적 사고방식에 별 차이는 없으며, 작가가 유독 "페미니즘적 견해"에 따라 그렇게 그렸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한편 작중에는 임꺽정이 아내를 두고 첩이 아닌 아내를 또 얻는 것에 대해 "예전 송도 서울 시절에는 그런 일이 많았다데."라고 말하는 대목이 있다.(7:128) 고려시대에도 법적으로는 다처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엄연한 일부일처제였으나, 고려 후기에 상류층의 일각에서 처가 있는데 다시 처를 취하는 병축(竝畜, 중혼) 풍조가 일어났던 것이다.(장병인, 『조선 전기 혼인제와 성차별』, 일지사, 1997, pp.403~404 참조)

두 사람을 무자비하게 때려죽이기까지 한다. 그러다가 서울의 처들 중 한 명은 죽고 나머지는 관비로 박히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전옥 파옥을 단념한다. 그 와중에 자신을 따르는 기생 소홍을 첩으로 맞아들인 임꺽정은, 아내를 따라 죽겠다는 오가에게 '열남정문'을 세워 주어야겠다는 서림의 농담에 대해 "그 열남이 며칠 가랴. 소첩이나 하나 얻어주면 허겁지겁할 테지."라고 답하는(8:167) 봉건시대의 통념적인 남자로 변모해 있다.

처음 등장했을 때 임꺽정보다 더 개성적인 인물로 되어 있던 운총의 변모는 더욱 심하다. 「화적편」 '청석골'장에서 임꺽정이 청석골 대장으로 추대되자 운총은 '대장 부인'이 되었으나, 별다른 역할이 주어지지 않은 채 무기력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남동생 황천왕동이가 백두산 태생이라 나는 듯이 걸음이 빠르다는 장기를 활용하여 화적패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과 달리, 운총은 그 특이한 성장과정에서 유래한 장점을 발휘할 기회가 없다. 그녀는 남자들로 이루어진 화적패의 일원으로 끼지도 못하고, 임꺽정의 누이 섭섭이처럼 청석골의 안살림을 총찰하고 아낙네들 사이에서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도 아니다. 이제 작중에서 '백손 어머니'로 칭해지는 운총은 임꺽정의 아들 백손이의 어머니로서만 존재 의의가 있을 뿐, 지각없고 무능한 주부로서 남편의 외도에 근심하고 강짜하는 평범한 아낙네로 되어 있는 것이다.[16]

16) 이에 대해서는 백두산이라는 원시적인 공간에서 생기발랄한 야성을 간직하고 있던 운총이 문명세계로 진입함에 따라 무기력한 모습을 드러내게 된 것이며, 따라서 당연한 변모라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작가가 애초에 주인공 임꺽정의 배우자를 그처럼 특이한 개성의 소유자로 설정한 데에는 그녀에게 어떤 역할을 부여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더욱이 청석골은 완전한 문명세계와는 다른 공간이므로, 백두산 태생으로 사냥을 하며 자란 운총이 청석골 화적패 내에서 나름의 역할을 갖는 것으로 그려졌다 해도 전적으로 황당무계하다고 여겨지지는 않았으리라 본다. 작가가 작품의 후반부에서 여성인물의 역할을 제한되게 그린 것은 이러한 운총의 예에서 가장 두드러지지만, 「피장편」에서 임꺽정과 그 의형제들에게 자극받아 입으로 콩을 불어

물론 운총은 외도하는 남편을 찾아 서울에 올라와 부부싸움을 하는 장면에서 기갈이 센 그 성격을 유감없이 발휘한다. 그러나 그 이후 운총에게서는 그처럼 당당하게 대드는 모습조차 찾아보기 어렵다. '송악산' 장의 서두에서 운총은 임꺽정이 서울의 세 계집을 버리고 부부간에 금슬이 다시 좋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송악산 단오 굿에 그네 뛰러 가고 싶어 안달이 난 모습을 하고 있다. '소굴'장에서는 서울의 처들이 전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임꺽정이 진노하자, "대왕당 그네를 뛴 보람으로 서울의 세 계집이 떨어지게 되었거니" 하는 생각에 은근히 좋아하다가 시누이인 섭섭이로부터 꾸중을 듣는다.(8:289~290)

주목할 것은, 운총이 뿐 아니라 다른 여성인물들도 작품의 후반에 이르면 대체로 생기를 잃고 존재감이 희미한 인물로 되어버린다는 사실이다. 『임꺽정』 전체에서 여성인물들이 생동하는 성격으로 뛰어나게 묘사되는 것은 주로 남성인물과 짝을 이루는 과정에서이다. 「의형제편」에서 각 장의 여주인공 격인 여성인물들이 각기 우여곡절 끝에 배우자를 만나 혼인하는 과정은 매우 흥미진진하게 그려지지만, 혼인 후 남편을 따라 청석골에 정착한 다음에는 그녀들의 생활상이 거의 구체적으로 그려지지 않는다. 「화적편」에 이르면 청석골에 살고 있는 여성인물들은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존재가 미미한 주변적인 인물로서, 어쩌다 한 마디씩 언급되고 있을 뿐이다.

『임꺽정』 「화적편」에서 청석골에 정착한 여성인물들이 어느 정도 비중있게 그려지는 것은 그녀들이 부부 동반하여 송악산 단오굿 구경을 간 이야기를 다룬 '송악산'장이 거의 유일하다. 여기에서는 여성인물들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원조가 격찬한 바

맞히는 재주를 일년 넘어 익힌 섭섭이(2:212~214)가 작품의 후반부에서는 그 재주를 활용하기는커녕 그런 재주를 익혔다는 사실조차 언급이 되지 않고 만 데서도 엿볼 수 있다.

와 같이[17] 작가는 여성인물들의 언동을 대단히 빼어난 솜씨로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그처럼 탁월한 묘사력에도 불구하고, '송악산'장에서 조차 여성인물들이 등장하는 장면은 남성들의 활약 장면에 비해 소략하게 처리되고 있다. 그리하여 안식구들이 중심이 되어 굿구경을 간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송악산'장의 중심된 사건은 청석골 두령들이 황천왕동이의 아내를 겁탈하려 한 왈짜패에 대한 복수로 살인을 했다가 체포될 뻔한 위기를 모면한 일이며, 결과적으로 이 역시 남성들의 힘과 계략을 자랑하는 이야기가 되고 만 것이다.

이처럼 『임꺽정』 「화적편」은 거의 전적으로 남성 주인공들의 활약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두령들의 배우자인 여성인물들의 생활상은 매우 소홀히 취급되고 있다. 그녀들이 청석골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 화적패 두령의 아내로서 살아가는데 만족하고 있는지, 아니면 특별히 어떠한 갈등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는 언급되지 않으므로, 잘 알 수 없다. 작품의 후반에서 작가는 여성인물들의 삶의 애환에는 무관심한 채, 청석골 두령의 아내로서 그저 별 탈 없이 살고 있으리라 일방적으로 믿어버리는 남성중심주의적인 사고방식을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물론 식민지시기의 다른 역사소설들과 정도 차는 있겠지만, 그 점에서 『임꺽정』 역시 남성중심주의적인 시각과 그에 따른 여성의 타자화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와 아울러, 『임꺽정』에는 봉건적인 가부장제에 눌리어 고통받는 여성의 모습이 드물게 그려져 있다는 점도 여성주의의 시각에서 볼 때 작품의 엄연한 한계로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임꺽정』에 '한 많은 여인상'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의형제편」 '곽오주'장에 등장하는 곽오주의 아내 신뱃골댁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고운 용모에 청상과부

17) 이원조, 「『임꺽정』에 관한 소고찰」, 『조광』 1938.8.(『벽초자료』, p.278)

가 된 그녀는 여성을 남성들의 놀이개로 취급하는 과부 보쌈 풍습의 희생자로 약탈당한 후, 남자들 간의 흥정의 대상이 되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머슴 곽오주의 아내가 되었다가, 아들을 낳은 후 산후탈로 죽고 만다. 그 아기를 혼자 동냥젖으로 키우던 곽오주는 배고파 밤새 보채는 아기를 달래다 못해 순간적으로 태질을 쳐 죽이고 난 뒤 청석골 화적패에 합류하게 된다. 곽오주 역시 가해자라 비난하기에는 너무도 가엾은 민중 남성이지만, 곽오주의 아내 신뱃골댁은 봉건사회의 성적 모순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여성인물로서 뛰어나게 형상화되어 있다.

그러나 신뱃골댁을 제외하면, 『임꺽정』에는 봉건적인 가부장제의 희생이 된 불행한 여성은 숫적으로도 드물게 등장할 뿐 아니라, 대체로 작중에서 제대로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한 여성인물의 예로는 남편에게 소박맞고 자살한 이봉학의 본처와 이춘동의 처 정도를 들 수 있다. 고전소설 『춘향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이봉학과 계향이의 아름답고 행복한 사랑 이야기의 이면에 작가가 굳이 소박데기 본처의 죽음이라는 비극을 설정한 것은, 스토리의 현실성을 높임으로써 작품의 근대 리얼리즘 소설로서의 성격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여기에서 못 나고 소극적인 성격에 불운하기까지 하여 한 많은 삶을 살다 간 이봉학의 본처 이야기는 너무도 간략하게 서술되는 데다가, 그녀의 시각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이춘동의 아내의 경우는 더욱 심하여, 「화적편」 '평산쌈'장에서 이춘동의 소경력이 요약적으로 제시되는 중에 그 아내가 시어머니와의 불화로 인해 남편으로부터 버림받고 자살했다는 사실이 스치듯 언급되어 있을 뿐이다. 이처럼 현실적으로 조선시대 여성들 사이에 흔히 있었을 한 많은 여인상이 제대로 그려져 있지 않은 점에서도 『임꺽정』은 여성주의의 시각에서 볼 때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4. 『임꺽정』의 리얼리티와 여성의식의 한계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홍명희의 『임꺽정』에는 주체적인 여성인물과 의좋은 부부상이 두드러지는 반면, 봉건적인 가부장제에 신음하는 불행한 여인상은 매우 드물며 희미하게 그려져 있다. 그러나 이처럼 진취적인 여성상을 주로 그리고 있다고 해서, 『임꺽정』을 남성에게 종속된 수동적인 여성상을 주로 그린 역사소설들에 비해 무조건 높이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문제는 『임꺽정』의 여성상이 과연 그 시대 여성들의 현실을 올바르게 그려내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는 역사적 진실성을 추구하는 리얼리즘 역사소설로서의 『임꺽정』의 가치를 논하기 위해 불가결한 작업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여성주의의 시각에서 이 작품을 논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최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조선시대 여성사연구의 성과들에 비추어보면, 『임꺽정』에 당당하고 진취적인 여성상이 주로 등장하는 것은 상당한 역사적 근거가 있다고 생각된다. 우선 주목할 것은, 『임꺽정』이 남녀차별을 당연시하는 유교적인 사회윤리가 사회 전반에 확고하게 자리잡기 이전인 16세기를 배경으로 한 역사소설이라는 점이다. 『임꺽정』의 시대적 배경은 갑자사화가 일어난 연산군 10년(1504)부터 임꺽정의 활약의 전성기에 해당하는 명종 15년(1560)까지로 되어 있다.[18]

조선왕조는 건국 당시부터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도입하고 그에 의거한 종법적(宗法的)인 부계(父系) 가족질서를 택하여 모든 사회제도를 그에 맞게 변화시키고자 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 뿌리를 두고 있는 풍속·관습의 변화는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16세기

18) 임꺽정이 관군에게 포살된 것은 1562년 1월이지만, 임꺽정 일당이 막바지 활약을 펼치다가 마침내 궤멸되기에 이르는 1561년부터 1562년 1월 초까지의 사건은 작품이 미완으로 끝난 까닭에 소설화되지 못하였다.

까지도 조선의 여성들은 예로부터 내려오는 여권 존중의 전통에 따라 비교적 높은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누리고 있었다.[19] 조선 초기에는 고려시대의 유풍이 남아 있어서, 혼인 후 남자가 여자 집에 머물러 사는 남귀여가혼(男歸女家婚)이 일반적인 혼인형태였다. 이를 불합리하게 여긴 위정자들은 남자가 여자를 맞이하여 혼례를 하고 곧바로 남자 집에서 생활하는 친영제(親迎制)로 바꾸고자 했으나, 실제로 친영례는 오랫동안 행해지지 않았다.[20]

이러한 여가(女家) 중심의 혼인 형태는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나 풍속에 영향을 미쳤다. 무엇보다도 가족 관계에서 아들과 딸을 차별하지 않았고, 친족 관계에서 본손과 외손을 구별하지 않았다. 족보에 친손만이 아니라 외손까지 모두 기록했으며, 족보에 자녀의 이름을 올릴 때 선남후녀(先男後女)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남녀를 불문하고 출생 순위에 따라 기록하였다. 또한 딸이나 외손이 제사를 지내는 일이 흔했으며, 특정 제사를 아들 딸 가리지 않고 자손들이 해마다 돌아가면서 지내는 윤회봉사(輪回奉祀)와, 자손들이 각자 선조들의 제사 가운데 특정 제사를 맡아 받드는 분할(分割)봉사가 행해졌다. 이처럼 자녀들 간에 제사에 대한 부담을 나누어 갖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만큼, 재산 상속에서도 자녀 균분(均分) 상속이 이루어졌다. 게다가 여성에게 상속된 재산은 혼인 후에도 남편의 재산과 별도로 개별적으로 관리되는 경우가 많았다.[21]

한편 조선 초기에 위정자들은 유교적인 윤리 규범을 일반인의 일상생활 속에까지 정착시키려는 의도에서 여성들에게도 갖가지 규제를 가했

---

19) 한국고문서학회 엮음, 『조선시대 생활사』(역사비평사, 1996), pp.105~106.

20) 명종조에 이르러서야 혼례는 여자 집에서 하되 혼례 후 여자 집에 머무는 기간을 2~3일로 줄이는 반(半)친영이라는 절충적인 형태로 일부에서 행해지기 시작했다. (위의 책, p.107 참조)

21) 한국여성연구소 여성사연구실, 『우리 여성의 역사』(청년사, 1999), pp.166~180.

다. 부녀자들의 사찰 출입을 억제하고 사신(祀神)행위에 대해 규제를 가했을 뿐 아니라, 의복제도에 대해 간섭하고 남녀간의 접촉을 금하는 내외법을 시행했다. 그러나 자유로운 전대의 유습에 젖어있던 당시의 여성들은 이에 쉽게 적응하지 못했으므로, 그러한 풍속과 제도가 여성들의 일상생활에 확고한 뿌리를 내리는 데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다.[22]

따라서 16세기에는 여성들의 바깥 출입이 비교적 자유로웠고, 학문과 예술활동도 장려되었다. 이 시기에 신사임당·송덕봉·허난설헌·황진이·이매창 등 여성 예술가들이 대거 출현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23] 반면에 유교적인 사회윤리가 완전히 뿌리를 내려 종법적인 가부장적 가족질서가 확립되고, 그 결과 남녀를 심하게 차별하고 부녀들의 일상생활을 규제하는 여러 가지 제도와 문화가 완전히 정착된 것은 조선 후기에 들어서였다.[24]

홍명희는 그 세대에서는 드물게 신교육을 받은 지식인이었지만, 다른 한편 유년시절부터 평생동안 한적(漢籍)을 섭렵하여 조선사와 조선문화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갖추고 있었다. 게다가 『임꺽정』을 연재 중이던 1930년대에는 당시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의 학자 지식인들 사이에서 일어난 조선학운동에 적극 가담한 학자로서의 면모도 지니고 있었다.[25] 따라서 그는 남존여비의 풍조가 극심했던 조선 후기에 비해 조선 전기에는 상대적으로 남녀차별이 덜하고 여성의 지위와 권리가 보장되었던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으리라 짐작된다.[26] 그러므로 『임꺽정』에서 홍명

22) 위의 책, pp.181~187; 정성희, 『조선의 성풍속』(가람기획, 1998), pp.58~65.

23) 정창권, 『홀로 벼슬하며 그대를 생각하노라』(사계절, 2003), pp.5~6.

24) 그와같은 가부장적이고 여성차별적인 사회질서가 확립된 것은 대체로 17세기 이후로 보는 것이 유력한 견해이다.(마크 피터슨, 『유교사회의 창출』, 김혜정 옮김, 일조각, 2000, p.219; 마르티나 도이힐러, 『한국사회의 유교적 변환』, 이훈상 옮김, 아카넷, 2003, p.249 참조)

25) 강영주, 『벽초 홍명희 연구』, 앞의 책, pp.327~349.

희가 당당하고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여성들의 모습을 주로 그린 것은 여권 존중의 기풍이 남아있던 16세기 조선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 한가지 고려해야 할 것은, 『임꺽정』에 등장하는 여성인물들 중 대다수가 민중 여성이라는 점이다. 조선 초기부터 위정자들이 강요한 성리학적 윤리 규범에 따른 여러 제도와 풍속은 지배층에서도 단시일내에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니와, 민중들 사이에서는 더욱 오랫동안 뿌리내리지 못하였다. 따라서 유교 이념이 전 신분, 전 지역으로까지 확산되기 이전인 조선 전기에는 성리학적 윤리 규범의 일차적인 적용 대상이 된 양반 여성들에 비해 평민이나 천민층에 속하는 여성들은 훨씬 더 자유롭고 분방한 삶을 살았으리라 추측된다.[27]

그런데 『임꺽정』에 등장하는 주요 여성인물들은 대부분 평민이나 천민 신분이며, 그녀들과 만나 각기 우여곡절 끝에 혼인하게 되는 남성들 역시 대체로 유교 윤리와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온 하층민 남성들이다. 게다가 그들 중 다수가 남녀의 결합과정에서나 결합 이후 불가피하게 도적 소굴인 청석골에 들어감으로써 봉건체제로부터 결정적으로 이탈하게 된다. 다시 말해 『임꺽정』의 주요 등장인물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애초부터 견고한 봉건적인 지배체제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왔거나, 체제 내적 인물이었다 하더라도 어떤 계기에 의해 체제 밖으로 내던져

---

26) 홍명희의 장남 홍기문이 1930년대에 신문에 연재한 조선문화에 대한 칼럼을 모은 저서 『조선문화총화』 중 부친의 가르침을 받아 적은 부분인 '추정록(趨庭錄)'을 보면, 「서방은 서방(西房)」 「독좌상(獨坐床)과 남침(覽寢)」 등의 항목에 조선시대 신혼시절 처가에 사는 습속과 친영례·반친영 제도에 대한 언급이 있다. 여기에서도 신혼부부가 처가의 서방에 거처하던 풍습이 사라진 것은 대개 명종·선조 이후의 일이라 추측하고 있다.(홍기문, 『조선문화총화』, 정음사, 1946, pp.78~82; 홍기문, 『홍기문 조선문화론 선집』, 김영복·정해렴 편역, 현대실학사, 1997, pp.78~82 참조)

27) 한희숙, 「조선시대 여성사 연구의 최신 동향」, 『인문과학연구』 제8호(가톨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3. 12), p.30.

진 결과, 봉건적인 신분차별이나 남녀차별의 관행으로부터 자유로운 처지에 놓인 인물인 것이다. 그러므로 『임꺽정』에 유교 윤리에 주눅들지 않은 활달한 여성인물과 평등한 부부의 모습이 주로 그려진 것은 다분히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와같은 개연성에도 불구하고, 『임꺽정』에 조선시대 여성의 현실이 다소 미화된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특징은 무엇보다도 홍명희의 남다른 반봉건의식과 페미니즘 사상에 기인한 것이 아닐까 한다. 홍명희는 명문 양반가 출신이면서도 철저한 반봉건의식의 소유자였으며, 여성관에 있어서도 매우 진취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다. 그는 1920년대 신간회 지도자로 활동하면서 여성운동단체 근우회의 활동을 지원했다. 그 무렵에 쓴 글들에서 홍명희는 "완전한 합리적 인류사회에는 여자가 남자와 같이 정치적·문화적으로 활동할 균일한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하여, 남녀평등에 대한 확고한 소신을 피력하였다. 그리고 구우즈·울스톤크라프트·크룹스카야·콜론타이 등 서양의 여성운동가들에 대해 언급한 것을 보면, 그는 서양 여성운동의 역사에 대해서도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28]

더욱이 홍명희는 관념과 지식의 차원에서만 페미니즘을 수용한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도 여성의 불평등한 처지를 십분 이해하고 남녀평등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듯하다. 신간회 동지 허헌이 상처한 뒤 위로차 그를 방문했을 때, 허헌이 '저생에서 다시 부부로 만나 미진한 한을 풀어보고 싶다'고 한 자기 부인의 유언을 이야기하자, 홍명희는 "저생서까지 여인으로 태어나야 미진한 한을 풀 길이 있을라고요. 저생선 긍인(兢人 : 허헌씨 아호)이 여편네 되고 돌아가신 부인께서 남

28) 홍명희, 「근우회에 희망」, 『동아일보』 1927년 5월 29일자(『벽초자료』, p.146); 홍명희, 「청춘을 어찌 보낼까」, 『별건곤』 1929. 6.(『벽초자료』, pp.148~150); 강영주, 『벽초 홍명희 연구』, 앞의 책, pp.211~213, pp.254~258.

편이 되야지요. 긍인이 저생 갈 적엔 여편네 될 각오를 하셔야지요."라고 응수하여 웃음을 자아냈다는 일화가 전한다.[29]

또한 해방 후 홍명희가 주도한 민주통일당과 민주독립당의 정책을 보면, "여자의 시간과 정력을 가정생활에 전부 소모치 않도록 공동식당·공동탁아소·공동세탁소 등의 시설을 속히 보급시킬 것"이라는 이색적인 조항을 두어, 여성을 가사노동에서 해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까지 나열하고 있다.[30] 이처럼 홍명희는 여성해방에 대한 뚜렷한 지론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임꺽정』을 통해 남녀차별을 당연시하던 동시대의 독자들을 계몽하려는 의도도 없지 않았던 것 같다. 따라서 그는 조선 전기의 실상에 비추어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라 여겨지지 않을 범위 내에서, 바람직한 여성상과 아름다운 남녀관계를 그려보이고자 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와 아울러 『임꺽정』에 조선시대 여성의 현실이 다소 미화된 모습으로 그려진 데에는 또 하나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된다. "'조선 정조(情調)에 일관된 작품' 이것이 나의 목표였습니다"라고 밝힌 바와 같이,[31] 홍명희는 『임꺽정』을 통해 일제 식민지 치하에 있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 회복과 민족의식의 고양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의도를 한편으로 지니고 있었다. 그런 까닭에 그는 『임꺽정』에서 조선시대 민중들의 삶과 투쟁을 사실적으로 그리면서도, 다른 한편 우리 민족의 삶을 가급적 밝고 건강하게 그리려 했던 것 같다. 『임꺽정』에 봉건체제의 가부장적 질서에 희생이 된 불행한 여성이 드물게 등장하는 반면, 진취적인 여성상과 의좋게 살아가는 행복한 부부의 모습이 주로 그려진 것은, 리얼리즘의

29) 「삼천리 기밀실」, 『삼천리』 1936. 12, p.24.

30) 『서울신문』 1947년 5월 7일자; 『한성일보』 1947년 9월 24일자; 강영주, 『벽초 홍명희 연구』, 앞의 책, p.452, p.475, pp.600~602.

31) 홍명희, 「『임꺽정전』을 쓰면서」, 『삼천리』 1933. 9.(『벽초자료』, p.39)

규율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조선시대 민중들의 삶을 밝고 아름답게 그리려 한 작가의 의도에 따른 것이라 볼 수 있다.

끝으로, 「화적편」에 이르러 주인공 임꺽정과 그의 아내 운총이 여성주의의 시각에서 볼 때 매우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그려진 것은, 무엇보다도 작가가 『조선왕조실록』의 내용을 대폭 수용하여 「화적편」을 써나간 데서 기인한 것이라 생각된다. 홍명희는 『임꺽정』「화적편」 연재를 시작하기 직전에 때마침 영인본이 나와 열람할 수 있게 된 실록을 숙독하고 그에 의거하여 화적편을 집필했다. 그리하여 『임꺽정』은 한국근대역사소설 중 실록을 본격적으로 수용하여 창작된 최초의 역사소설이라는 영예를 안게 되었으나, 다른 한편 그로 인해 작가의 상상력의 자유를 구속당하는 등 창작에 여러 가지 제약이 초래된 면이 없지 않았다.[32]

『임꺽정』「화적편」에 드러난 여성의식의 후퇴는 실록의 수용으로 인해 작가의 자유로운 상상력이 제약을 받은 결과라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서울 장통방에서 임꺽정을 잡으려다 놓치고 그의 처 세 명만 잡았다는 『명종실록』의 기사 두 편[33]은 「화적편」 전체의 구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인다. 그 기사의 내용에 따라 홍명희는 「화적편」의 서두 '청석골'장에서 임꺽정이 서울에서 외도를 하여 운총이 외에 처를 세 명이나 거느린 것으로 그리게 되었다. 그리고 이를 소설적인 논리로 뒷받침하기 위해 임꺽정이 청석골 화적패의 대장으로 추대된 뒤 여자를 좋아하고 가부장적인 권위의식을 지닌 남성으로 변모한 것처럼 그릴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화적편」의 주요 사건들이 철저히 남성중심주의적인 봉

32) 강영주, 「『임꺽정』의 창작과정과 『조선왕조실록』」, 『한국현대문학과 역사』(한국현대문학회 2006년 하계 학술대회 발표요지, 2006. 7), pp.5~18.

33) 『명종실록』 15년 8월 20일자, 11월 24일자, 『명종실록』 제13권(민족문화추진회, 1967), p.93, p.120.(『벽초자료』, p.414, p.417)

건시대 관변 사료인 실록의 기사들에 의거하여 구상됨에 따라, 「화적편」에서는 남성인물들의 활약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반면에 운총을 비롯한 여성인물들은 작가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게 되고, 적극성을 상실한 채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그려지게 된 것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임꺽정』은 실록에 의거함으로써 근대적인 역사소설로서의 면모가 뚜렷해지고 작품의 리얼리티가 강화된 반면, 전망이 결여되고 민중성이 약화된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거니와,[34] 「화적편」에서의 여성의식의 후퇴는 바로 그러한 한계의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5. 맺음말

이상에서 필자는 홍명희의 역사소설 『임꺽정』을 여성주의의 시각에서 고찰해 보았다. 식민지시기 대부분의 역사소설들과 달리, 『임꺽정』에는 강하고 주체적인 여성인물과 평등하고 의좋은 부부상이 두드러지게 그려져 있으며, 남녀평등 사상을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듯한 등장인물들의 언동이 여기저기서 발견된다. 반면에 봉건적인 가부장제에 눌리어 고통받는 불행한 여인상은 드물고 대체로 희미하게 그려져 있다.

그러나 「화적편」에 이르러 주인공 임꺽정은 봉건적인 남녀차별을 당연시하는 통념적인 남성으로 변모한 것으로 그려진다. 또한 임꺽정의 아내 운총을 비롯한 대부분의 여성인물들은 작품의 전반부에서 보여준 주체성을 상실한 채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

『임꺽정』에 주체적인 여성상이 주로 그려진 것은 이 작품이 조선 후

34) 『임꺽정』 「화적편」에 『조선왕조실록』이 수용된 양상과, 실록의 수용으로 인해 작품의 리얼리티가 강화된 반면 전망과 민중성의 약화가 초래된 점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강영주, 「『임꺽정』의 창작과정과 『조선왕조실록』」, 앞의 글, pp.7~20 참조.

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남녀차별이 심하지 않았던 16세기를 배경으로 한데다가, 주요 등장인물들이 남녀차별적인 유교 윤리의 구속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웠던 민중들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개연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홍명희는 평소 여성해방에 대해 뚜렷한 지론을 가지고 있었고, 민족주의적 동기에서 소설 창작에 임했던 만큼, 『임꺽정』에서 조선시대 우리 여성들의 삶을 가능한 한 밝고 건강하게 그리려 했다고 생각된다.

「화적편」에서 임꺽정과 운총의 성격이 변모하고 여성인물들이 비중있게 그려지지 못하는 등 여성의식의 후퇴를 드러내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작가가 「화적편」을 연재하던 무렵에 『조선왕조실록』을 처음 접하고 실록의 내용을 대폭 수용하여 소설을 창작해나간 데서 초래된 현상이라 볼 수 있다. 실록에 의거함으로써 『임꺽정』은 리얼리티는 강화되었지만 민중성의 측면에서 일정한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는데, 「화적편」에서의 여성의식의 후퇴는 바로 그러한 한계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 참고문헌

1. 기본자료

홍명희, 『임꺽정』 전10권, 제3판(사계절, 1996).

2. 논문

강영주, 「한국근대역사소설연구」(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6).

_____, 「역사소설의 리얼리즘과 민중성-『장길산』론」, 『한국 역사소설의 재인식』(창작과비평사, 1991), pp.173~272.

_____, 「『임꺽정』의 창작과정과 『조선왕조실록』」, 『한국현대문학과 역사』(한국현대문학회 2006년 하계 학술대회 발표요지, 2006.7), pp.1~20.

김재화, 「홍명희의 『임꺽정』 연구-조선정조와 민중정서를 중심으로」(상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박대호, 「민중의 주변부성과 향약자치제적 세계관-홍명희의 『임꺽정』」, 『한국현대장편소설연구』, 구인환 외 공저(삼지원, 1989), pp.165~185.

박명순, 「벽초의 『임꺽정』에 나타난 여성인물 연구」(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백문임, 「홍명희의 『임꺽정』 연구-구성방식을 중심으로」(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임미혜, 「홍명희의 『임꺽정』 연구-역사소설의 특징과 형태를 중심으로」(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한희숙, 「조선시대 여성사 연구의 최신 동향」, 『인문과학연구』 제8호(가톨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3. 12), pp.21~47.

3. 단행본

강영주, 『벽초 홍명희 연구』(창작과비평사, 1999).

안함광, 『조선문학사』(연변교육출판사, 1956).

임형택 · 강영주 편, 『벽초 홍명희와 『임꺽정』의 연구자료』(사계절, 1996).

장병인, 『조선 전기 혼인제와 성차별』(일지사, 1997).

정성희, 『조선의 성풍속』(가람기획, 1998).

정창권, 『홀로 벼슬하며 그대를 생각하노라』(사계절, 2003).

최홍기 외, 『조선 전기 가부장제와 여성』(아카넷, 2004).

한국고문서학회 엮음, 『조선시대 생활사』(역사비평사, 1996).

한국여성연구소 여성사연구실, 『우리 여성의 역사』(청년사, 1999).

한창엽, 『『임꺽정』의 서사와 패로디』(국학자료원, 1997).

홍기문, 『조선문화총화』(정음사, 1946).

마르티나 도이힐러, 『한국사회의 유교적 변환』, 이훈상 옮김(아카넷, 2003).

마크 피터슨, 『유교사회의 창출』, 김혜정 옮김(일조각, 2000).

G. Lukács, “Der historische Roman,” *Probleme des Realismus Ⅲ*, Frankfurt am Main : Suhrkamp, 1970.

Abstract

A Study on *Lim, Kkeok-jeong* from a Feminist Viewpoint

Kang, Young-Zu

In *Lim, Kkeok-jeong*, a historical novel by Hong, Myung-hee, there often appears description of a strong and independent woman or description of a happy couple. We can also find characters' speech and action embodying an idea of sexual equality in it. These features are caused by the fact that *Lim, Kkeok-jeong* is a historical novel about the Chosŏn dynasty in the sixteenth century, when sexual discrimination was not so serious as in the late Chosŏn dynasty. And by the fact that its main characters are the people seceding from the feudal system. Hong, Myung-hee had firm opinion about sexual equality and an enlightening intention that he wrote a historical novel to advocate nationalism. So he described characters and lives of Chosŏn women bright and beautiful in *Lim, Kkeok-jeong*.

But in 'The Bandit', the last part of this novel, *Lim, Kkeok-jeong* changed into a man of common idea taking feudal sexual discrimination as a matter of course. In addition, most female characters including heroine Un-chong are described as ordinary women losing positiveness in this part. This change seems to be caused by the fact that the writer read *Veritable Records of the Dynasty of Chosŏn* for the first time and accepted to his novel greatly when he wrote 'The Bandit'.

Key words : Hong, Myung-hee, *Lim, Kkeok-jeong*, feminism, a historical novel, *Veritable Records of the Dynasty of Chosŏn*

■ 본 논문은 9월 30일 투고되어 11월 10일에 심사가 완료되었으며 11월 20일 게재가 확정되었음.